즉시 배포용: 2016년 5월 5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농업 농지 평가액 상한 정책을 통해 농장주들에게 2,300만 달러가 절감되었다고 발표하다

2년에 걸친 절약 비용이 뉴욕주 농장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지 평가액 상한의 결과로 지난 2년 동안 뉴욕주 농장주들이 2,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절약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주지사가 처음 입법 서명한 이 상한액으로 평가액이 연간 2%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한액은 10%로 고정되었습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에 주요 동인입니다. 이 행정부는 힘과 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장주들에게 꼭 필요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중요 산업에서 기업 활동 및 성장 주도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농지 평가액 상한 정책을 시행하기 7년 전과 비교에 농지에 대한 기준평가액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후 첫 해에 농장주들은 1,10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2015년, 이러한 연간 절약액은 1,2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은 2016년에 더 큰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농지 평가액 상한 정책에 따른 지역별 절감액	
Capital Region	2,887,485달러
Central New York	1,658,240달러
Finger Lakes	5,908,435달러
Long Island	2,363,656달러
Mid-Hudson	5,767,577달러
Mohawk Valley	661,235달러
North Country	736,314달러
Southern Tier	2,107,031달러
Western New York	1,236,972달러
합계	**23,326,944달러**

농업부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예측 가능하게 하니 농장주들이 더 많은 정보력 있는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생산성과 수익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계가 2년 연속 얻고 있는 세금 절약은 우리 농장주들의 최종 수익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무국의 Jerry Boon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평가액 상한 정책은 재산세 상한 정책과 함께 재산세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 농업의 경제적 활력이 증대되고 Cuomo 주지사가 뉴욕주민들에게 재산세 공제를 제공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게 하고 있습니다.”

New York Farm Bureau의 Dean Nort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ew York Farm Bureau는 주지사 및 입법의원들과 농지 평가액 상한선을 두는 것을 지지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는 농장주들에게 중요한 비용 절감 도구로 증명되었습니다. 기업 비용을 낮추고 세금을 억제하려는 활동은 뉴욕주 농장의 미래 생존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농장의 미래는 가족들이 자신의 토지에 머물고 다음 세대에게 농사를 물려줄 수 있는 데 달려있습니다. 숫자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상한선은 근면한 우리 농장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은 농사 비용을 낮추고, 자신들의 토지에 계속 남아 있고, 뉴욕 농업 경제의 더 큰 성장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회 농업위원회 의장인 Bill Magee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2% 농지 평가액 상한 정책은 농업세의 안정성을 가져와서 농장주들이 자신들의 농업을 키우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의 농업에 혜택을 주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이 중요한 비용 절감 정책을 지지해주신 주지사와 입법부 동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에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들의 재산세 상한을 2%로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재산세 상한은 뉴욕주가 "세금 수도"라는 심리상태를 바꾸고 기업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Cuomo 지사가 추구한 일련의 세금 감면 이니셔티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한 정책의 결과, 재산세 납부자는 평균 800달러 이상을 절약하였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17년까지 평균적 재산세 납부자는 지방 재산세에서 $2,100 이상을 절약할 것입니다.

농지 평가 프로그램 신청 및 지침을 포함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뉴욕주 세무과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